

가을태풍 ‘타파’ 기록적 강풍·폭우

비껴가면서도 제주섬 곳곳 적잖은 생채기 남겨
성산지역 9월 역대 3위 강풍... 순간풍속 30.4%
어리목 698mm... 대부분 지역엔 200mm 이상 폭우

제17호 태풍 ‘타파’가 기록적인 강
풍과 폭우를 제주에 남겼다.

▶▶관련기사 4면

22일 기상청에 따르면 태풍 타파는 이날 오후 3시 현재 서귀포 남동쪽 약 110km 부근 해상에서 시속 35km의 속도로 북동진하고 있다. 중심기압 970hPa, 최대풍속 초속 35m, 강풍반경 350km의 강도 ‘강’의 중형급 세력을 유지하고 있다.

이후 태풍 타파는 22일 오후 9시 부산 남쪽 약 80km 부근 해상까지 진출할 것으로 예상됐다. 이에 따라 제주는 이날 오후 5시 이후로 차츰 태풍의 영향권에서 벗어나겠다.

21일부터 22일 오후 4시까지 강수량은 한라산 어리목 698.5mm를 비롯해 제주시 278.5mm, 산천단 564mm, 오등동 533mm, 신례 287.5mm, 성산 299.6mm, 송당 441.5mm, 윗세오름 632.5mm, 한라생태숲 601mm를 기록했다. 반면 고산 69.1mm, 대정 104.5mm, 한림 121.5mm 등 서부지역은 상대적으로 강수량이 적었다.

바람도 매우 강하게 불었다. 22일 오후 4시 기준 일최대순간풍속은 지귀도 40.6%, 기상과학원 33.8%, 태

풍센터 31.6%, 윗세오름 31%, 성산 30.4%다. 특히 성산의 경우는 9월 중 역대 3위의 일최대순간풍속을 기록했다.

이 밖에도 제주도전해상과 남해서부 먼바다에는 태풍경보가 발효중인 가운데 23일까지 바람이 15~30%로 매우 강하게 불고, 최대 10m 이상의 매우 높은 물결이 일고 있는 상황이다.

기상청 관계자는 “태풍 타파에 동반된 구름대의 영향 등으로 22일 밤까지 20~60mm, 많은 곳은 100mm 이상의 비가 더 내릴 것으로 보여 산사태나 저지대 침수, 하천 범람에 철저

히 대비해야겠다”며 “바람도 22일까지 최대 45%, 23일 오전까지도 20~30%로 강하게 불겠으니 안전사고에 주의해야한다”고 당부했다.

이어 “태풍의 영향에서 벗어나는 23일 오후부터는 구름이 많겠으며, 중국 북부지방에서 동진하는 고기압의 영향을 받는 24일은 맑겠다”고 덧붙였다.

송은범기자 seb1119@ihalla.com



제17호 태풍 ‘타파’가 제주를 향해 북상하는 22일 오전 서귀포시 성산항 어선부두에서 제주해경대원과 선원들이 어선의 결박을 단단히 고정하는 등 안전조치를 하고 있다.

‘더큰내일센터’ 혁신인재 육성 첫 걸음

24일 참여자와 함께 개소식

‘제주더큰내일센터(이하 ‘더 큰 내일센터’)'가 100명의 1기 참여자 선발을 완료하고 오는 24일 제주시 오라동 연북로변에 위치한 센터에서 개소식을 갖고 본격적인 혁신 인재 육성에 돌입한다.

더 큰 내일센터는 지난 8월 1일부터 같은 달 23일까지 진행된 1기 참여자 모집 공고(경쟁률 약 2.1대 1) 합격자를 대상으로 2단계에 걸쳐 면접이 진행됐으며,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난 20일 최종선발자 명단을 발표했다.

이목희 대통령직속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 등 도내의 주요 인사와 대거 참석한 가운데 열리는 개소식에서는 도지사의 탐나는 인재중 수여와 한화건설에서 1500만원 상당 도서지

원 관련 증정식도 있을 예정이다.

오후 2시부터 진행되는 2부 부대행사로 ‘세계를 향한 무한도전’이라는 주제로 한국 홍보전문가 서경덕 교수의 특강이 진행된다.

김종현 더큰내일센터 센터장은 “전국 지자체 중 최초로 시도되는 모델인 만큼 어려움이 적지 않겠지만 그 담대한 도전과 실험에 기꺼이 온 역량을 갈아 넣어 도내 혁신역량의 총합을 늘리는 매커니즘을 만들어내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한편 더큰내일센터 운영과 관련 선발된 참여자들은 6개월 간 기본의 무교육과 취업·창업·창작 등 유형별 심화교육을 이수하고 이후 1년6개월 동안 프로젝트 수행형 인턴십, 실제 창업창작 준비 등 3·4단계의 교육훈련 프로그램을 제공받는다.

조성윤기자 sycho@ihalla.com

돼지고기 물량부족시 도외반출 제한

제주도, 물량 수급 및 가격 안정 상황실 운영

제주특별자치도는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발생 여파로 제주시 돼지고기 가격이 상승함에 따라 가격 안정 시까지 돼지고기 수급 안정대책기간을 운영한다고 지난 20일 밝혔다.

또 도내 유통되는 돼지고기 물량 부족 시에는 도외 반출량에 대해 도내 내수시장으로 유통될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갈 계획이다.

도에 따르면 2018년 생산량 4만 6103t(86만두) 기준 도내 소비량은 35%인 1만6168t, 도외 반출량은 2만 9935t(55만8000두)이다.

도는 수급안정 대책기간 동안 돼지고기 수급 및 가격 안정 상황실을 운영해 도축 단계에서부터 판매 단계까지의 전 과정에 대한 모니터링과 현장 지도에 나서고 있다.

특히 돼지고기 공급 확대를 위해 도축물량을 확대하고 도내 육가공·판매장의 보관물량 공급 확대를 추진할 방침이다.

우선 생산자단체와 양축농가 등에 적기출하를 독려하고 출하 작목반별 출하물량을 조절할 계획이다. 평시 1일 3429두에서 4500두까지 30% 이

상의 도축을 확대함으로써 원활한 공급을 유도한다.

도내 도축장 2개소의 도축장 포화 상태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축산기업조합중앙회, 축산물 유통협의회 등과 도축 물량의 분산 출하 협의도 완료된 상태다.

또 대책기간 중에는 도축장 가동률이 90% 이상으로 집중도축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돼 도축설비, 폐수처리 등 사전 시설 점검을 통한 정상적인 도축이 진행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더불어 축산물 가격 안정을 위해 생산자협회에서 직영하는 하나로마트와 대형매장에서 할인 판매를 적극 권장하고 축산물 가격을 현행 수준을 유지하도록 지도에 나선다.

특히 도는 특산물 출하두수 및 경락가격, 소비자 판매가격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해 일일 축산물 가격 동향자료를 도청홈페이지에 게재함으로써 도민들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투명한 가격으로 유통될 수 있도록 유도하며 도내 돼지고기 유통가격 변동사항을 예의주시해 나갈 계획이다.

오은지기자 ejoh@ihalla.com

제주네비게이션 AS센터
블랙박스 점검센터
(본죽사거리에서 바닷가 방향 세게로마트 내)
블랙박스 4채널 장착가능
네비게이션 업데이트 가능
☎ 711-6544

도의회, 4·3특별위원회 활동기간 1년 연장

의회운영위 20일 결의안 가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4·3특별위원회 활동기간이 1년 연장된다.

제주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김경학)는 지난 20일 제376회 임시회 회기 중 1차 회의를 열고 정민구 의원(4·3특위 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4·3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 결의안’을 원안 가결했다.

정 의원은 “4·3생존 수형인에 대

한 재심사건에서 역사적인 공소기각 결정이 내려진데 이어 형사보상청구에서도 인용결정이 내려지는 등 4·3 문제에 대한 관심이 더욱 고조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4·3희생자 및 유족에 대한 배·보상을 골자로 하는 4·3특별법 개정안이 발의돼 국회에 계류중인 상태에서 정부와 국회를 상대로 한 교섭력(건의 등)을 높이기 위해 4·3특별위원회의 활동 연장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며 제안이유

를 설명했다.

결의안은 향후 4·3특별법 개정안 국회 통과 관련 노력, 4·3희생자의 명예회복 및 배·보상 문제 해결 노력, 4·3관련 각종 기념사업의 성공적인 추진, 기타 4·3관련 주요 현안사항 해결 등을 위해 4·3특별위원회 위원을 13명 이내로 구성하고 활동기간을 2019년 10월 16일에서 2020년 10월15일까지로 연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결의안의 최종 채택은 24일 열리는 제2차 본회의에서 결정된다.

오은지기자

감귤산업 종사자 여러분!! 이것만은 꼭 지켜주세요!!

최근 경기침체에 따른 소비심리 위축, 경쟁과일의 생산량 증가 등으로 인해 어느 해 보다 감귤 유통에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어, 정기총회를 (9.18일) 개최하여, 다음과 같이 소속 단체별 역할분담과 철저한 실천을 결의, 가격 안정화를 도모해 나가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결정사항】

- ▶ **극조생 감귤 부패와 줄이기 노력에 동참합니다.**
 - 완숙과 위주로 먼저 수확하고 선별 출하 합니다.
 - 수확전 부패 방지제를 살포하여 부패를 줄입니다.
 - 수확시 충격에 의한 상처과가 없도록 주의합니다.
 - 수확후 충분한 예조과정을 거쳐 상처과, 충해과를 입고전에 선별합니다.
- ▶ **노지감귤 수확할 때 너무 작은 과실크기 소과(45mm이하)는 수상선과로 감귤원에서 자체 격리하여 상품품질을 높입니다.**
- ▶ **가공용 감귤은 산지에서 철저히 격리하고, 도외 상품으로 출하되지 않도록 합니다.**
 - 가공용감귤 규격 : 2L초과(71mm이상) 감귤 및 종결점과 ※ 당도에 상관없이(10브릭스 이상도 포함) 적용
- ▶ **가공용 감귤 가격 결정 : 1kg당 180원 수매(18년산과 동일)**

※ 감귤 출하시 감귤 출하신고소에 출하전표를 반드시 제출합니다.

◆ **감귤농업인, 유통을 하시는 분들께서는 위 사항을 준수하여 감귤 가격 안정화에 다 함께 참여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제주특별자치도감귤출하연합회 회원일동